

참여연대 / 경실련 공동성명

수 신 강북경찰서 종로서 기자실, 교육부
발 신 참여연대, 경실련
제 목 한상권교수 복직 촉구 성명
날 짜 1998. 3. 16. (총 2 쪽)

덕성여대 재단 이사장과 총장은 한상권 교수를 즉각 복직시켜야 한다.

.....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참여민주사회시민연대」(참여연대)는 작년 10월 29일 우리 사회를 대표하는 각계 원로 23분을 모시고 '교육부는 조속히 관선이사를 파견하여 덕성여대사태를 슬기롭게 해결하기 바랍니다'는 제하의 성명서를 발표하여 덕성여대사태의 민주적인 해결을 촉구한 바 있다. 이후 덕성여대 이사진이 개편되고 학생들도 수업에 복귀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우리는 덕성여대사태가 원만히 해결되고 또 부당하게 해직되었던 한상권교수도 원상복직된 것으로 알았다. 그러나 최근 「학술단체협의회」와 「민주화를위한 전국교수협의회」에서 한상권교수 원상복직을 촉구하고 신임 이사장 퇴진과 관선이사 파견을 요구하는 성명서를 발표하였다는 소식을 듣고 적잖이 당황하였다.

우리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학생들은 작년 12월 이사진이 개편된 이후 지금까지 민주총장 선출을 요구하며 철야농성을 계속하고 있고 교수협의회 소속 교수들도 한상권교수 복직을 요구하며 교수휴게실에서 농성을 계속하고 있으며, 한상권교수는 신임 총장이 선출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복직되지 않아 로비에서 이른바 '장외강의'를 하고 있다고 한다. 이사진 개편 이후로도 덕성여대 사태는 하나도 해결되지 않은 채 원점으로 회귀한 것이다.

이사진 개편으로 학내 비리가 척결되고 민주 사학으로 거듭 날 것이라는 기대와는 달리 덕성여대사태가 여전히 파국으로 치닫는 까닭은 무엇일까? 우리는 그 일차적인 원인이 덕성여대사태 해결을 위해 파송된 이사장과 이사들의 무책임한 태도에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김계수 이사장과 이사들은 파견된지 3개월이 넘고 새학기가 시작되었는데도 한상권교수를 복직시키지 않아 문제 해결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 다음으로는 위법부당 행위

의정부 시민광장 / 참여연대

연락처 : 의정부 시민광장 (0351)878-5695 / 참여연대 (02)723-5300

수 신 각 신문사 사회부 및 법조출입기자
발 신 의정부 시민광장, 참여연대
제 목 의정부 수뢰판사 고발 및 기자회견의 건
날 짜 1998. 2. 24. (총 7 쪽)

보 도 자 료

406명 시민의 이름으로 수뢰판사 고발
- 의정부 비리판사 고발장 접수 및 기자회견 -

1998년 2월 24일 오전 10시 의정부지청

1. 의정부지역 시민운동단체인 의정부시민광장(회장 김명규)과 참여연대(공동대표 金重培·金昌國·朴相增)는 의정부지원 판사비리사건과 관련하여 오늘 오전 10시 경기도 의정부시 가능동 의정부지청에 수뢰판사 전원에 대한 시민고발장을 접수했다.
2. 참여연대와 의정부시민광장의 고발인 모집 결과 많은 시민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해 대표고발인 김명규, 심병호(沈炳浩), 이재순(李載順), 김형완(金炯完) 외 406명이 시민고발에 참여하였다. (60여명 개별 고발장 접수)
3. 참여연대와 의정부시민광장은 고발 이후 담당검사에게 엄정한 수사를 촉구하고, 격려하기 위한 편지보내기 운동을 펼쳐나갈 예정이며, 검찰의 수사진행에 따라 후속 고발 등 지속적인 사법비리근절을 위한 시민행동을 펼쳐나갈 것이다.

* 별첨 : 고발장 1부